

헤어스타일 ·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해선 · 강경자*

서울정보기능대학 패션디자인과,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과

The Effect of Hair-style · Hair-length and Types of Hat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Hae-sun Jeong · Kyung-Ja Kang*

Dept. of Fashion Design, Seoul IT Polytechnic Colleg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3. 8. 2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air-style (straight and wave), hair-length(short, medium, and long), and type of hat design (no-hat, beret, cloche, bowler, and capeline) on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The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 scales were designed. Thirty stimuli color pictures of various combination of hair length, hair style, and type of hat design were manipulated by computer drawing. The subjects were 360 undergraduates living in Seoul, Kyunggi and Kyungnam. The experimental design was composed of 3 factorial design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us consisted of the 5 different dimensions (attractiveness, gracefulness, activity, concentration of attention, cuteness). Hair style greatly affected gracefulness. On the other hand, hair length made remarkable effects on attractiveness, concentration of attention, and cuteness.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type of hat design significantly influenced on all the factors except attractive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In regarding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each variable, the combination of hair style and hair length had significant effects on gracefulness. In the impression formation of cuteness, the combination of hair length and type of hat design were more significant.

Key words: Impression formation, Hair-style, Hair-length, Types of hat design; 인상형성,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

I. 서 론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타인에게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인상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한 번 형성된 인상은 변하기 어렵고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첫인상의 형성과정에서 지각자는 주어진 정보중 신체적 외모나 의복변인과 같은 가장 두드러지는 가

시적인 단서에 근거하여 범주화에 의한 인상형성을 이루게되며 동일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연령, 성별, 성격, 과거의 경험, 교육 등에 따라 자극을 지각하는 정도에서는 개인차가 있게 된다.

Delong(1968)은 신체부위 중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째 신체적 특성으로 타인들과의 대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흥미의 초점이 된다고 하였으며, Kaiser(1990)는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인상을 전달하게 되고 지각자는 눈, 코, 입만이 아니라 헤어스

타일에 의한 얼굴 윤곽 등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Gestalt)를 이루어 지각하게 되므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나광주(1989)는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연구에서 의복이 53.3%, 헤어스타일이 46.7% 인상형성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이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하지만 헤어스타일 또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헤어부분이 의복에 비해 비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자착용으로도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강혜원, 이주현, 1990; 강혜원, 고애란, 1991; 김재숙, 1991; 문영보, 1991)들은 의복을 관련시켜 인상형성 효과를 연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헤어스타일과 얼굴형에 관한 미용관련 연구(나광주, 1989; 김양휴, 1996; 김복숙, 1999)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모자와 관련시킨 인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자는 머리위에 착용하기 때문에 패션코디네이션 아이템 중에서 가장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이며, 모자는 헤어스타일이나 헤어길이와 함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 중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선정하여 색상은 검정으로 통제하고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에 변화를 준 후 이들 단서의 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차원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 단서들이 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이론(Impression Formation Theory)

인상형성이론은 형태주의적 접근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에 따른 접근으로 구분된다. 인상형성과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의 의미가 기계적으로 합산되어 최종적 인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행동주의 방식을 제시한 Anderson(1968)은 평가적 차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었다. 그러나 형태

주의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 Asch(1946)는 인상을 지각의 대상자가 아닌 특질,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하나의 일관된 전체형태라고 가정하고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또한 인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주변특성의 의미가 결정되는 즉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았다(강혜원, 1995).

인간이 타인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인상형성과정에서는 다양한 단서들이 사용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의복을 포함한 외모가 두드러진 단서가 된다. 의복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DeLong과 Lantz(1980)는 잡지에서 발췌한 의복 착용자의 사진자극물을 의미미분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착용자의 인상은 평가, 활동성, 복잡함, 실용성, 역능, 기타의 차원으로 도출되었고, 박혜선(1982)은 다양한 의복에 관련된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한 연구에서 평가, 활동, 역능요인과 그 외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두 연구에서 모두 평가요인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과 관련시킨 인상형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이주현, 1990; 강혜원, 고애란, 1991; 문영보, 1991; 윤소영, 2001;)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변수들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복의 세부적 변인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의복변인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용한 변수들에 의한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인상차원은 다소 차이를 보여 앞으로 계속 다루지 못한 외모변인들에 의한 인상차원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

1) 헤어스타일(Hair-style)

복식이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헤어스타일은 상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윤소영, 2001),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변인 중 하나로(Cash, 1985) 사회 개발화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지속적인 변화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김복숙, 1999). 사람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의 한 부분으로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처럼 사람의 외모를 좌우하는 요소로 패션과 함께 헤어스타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Terry와 Davis(1976)에 의하면 얼굴 매력은 입, 눈, 얼굴구조, 헤어,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여 헤어스타일이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Pancer와 Meindle(1978)은 헤어길이가 성격에 대한 인상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서 긴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Cash(1985)는 여성의 관리직 평가에서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한 결과 비관리직 외모단서는 많은 웨이브가 있는 긴머리로 염색하고 얼굴을 가리고 리본이나 머리핀으로 장식한 형태이며, 관리직 외모단서는 짧고 단순한 헤어스타일로 장식이 없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도주연(1991)은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연구에서 스트레이트는 수수하고 자연스럽고 청순한 이미지를 주고 웨이브는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중간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헤어길이 인자에서 짧은 머리는 개성적인 이미지, 중간머리와 긴머리는 세련된 이미지에 우선적으로 관여하는 인자로 나타났다. 헤어길이 변화에 따른 얼굴이미지에서는 짧은 머리는 현대적인, 도시적인, 적극적인, 개성적인, 차가운, 발랄한, 단순한 이미지에 치우치며, 중간머리는 촌스러운, 고전적인, 전원적인, 소극적인, 보기싫은, 돌보이지 않은, 평범한, 무개성적인, 둔한 이미지에, 긴머리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상냥한, 섬세한, 자연스러운, 따뜻한, 점잖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영미(1997)는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네크라인에 따른 얼굴이미지를 살펴보면 라운드, 브이, 보우트, 스퀘어, 하이 네크라인의 의복을 착용했을때는 긴 웨이브 머리나 단발웨이브 머리에서 개성적, 여성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앞머리를 내린 긴 스트레이트와 단발 스트레이트에서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와 단정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긴 스트레이트와 커트머리에서는 지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김양휴(1996)는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정서적이고 비공격적 성향인 강인성 차원에서 긴 스트레이트의 부분 염색한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컷 스트레이트의 전체 염색한

스타일을 가장 싫어하였으며, 내향성일 경우는 웨이브 컷트의 염색 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웨이브의 긴머리로서 부분 염색한 스타일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때는 웨이브 컷의 염색 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컷 스트레이트의 전체 염색을 부정, 자신의 감정 노출을 억제하는 허위성 차원에서 웨이브 컷의 염색 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웨이브 긴머리의 부분염색을 가장 싫어하였다.

2) 모자(Hat)

본 연구에 사용된 단서 중 모자는 초기에 실용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식성이 강해져 왔으며, 토털 코디네이션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패션쇼(fashion show), 모드(mode)의 발표, 디스플레이(display)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이경순외, 1998).

여성모자가 남성모자 유행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 영역을 이룩한 것이 17세기말로 이해되고 있으며 여성모자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전문직이 탄생하여 그 명칭을 millinery라 불리게 되었다(박민영, 1997). Millinery를 영어로는 Hat, 불어로는 샤페(Chapeau)와 같은 어미로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한다(박혜숙, 1978). 또한 사전적 의미로는 여성 모자류나 여성모자 제조업이라는 뜻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모자를 구분할 때 크라운(Crown: 머리부분)과 브림(Brim: 챙)이 있는 것을 총칭하여 햇트(Hat)라고 하고 브림이 없는 것을 캡(Cap)이라고 하나 요즘은 브림이 모자의 머리부분 주위를 따라 달려 있는 것을 햇트(Hat)라 하고 브림이 머리부분의 앞쪽으로만 달려 있는 것을 캡(Cap)이라 한다. 영어의 Hat은 때로는 Cap을 포함하는 모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Cap은 Hat을 포함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모자의 유형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브림이 없는 베레(Beret)와 필박스(Pillbox)가 있고, 머리 전체를 감싸고 턱밑이나 목뒤에서 끈으로 매는 보닛(Bonnet), 후드(Hood)와 헤드 타이(Head Tie)가 있다. 그리고 브림이 좁은 것으로 리본으로 장식하는 밀짚모자형인 보터(Boater)와 펠트를 많이 이용하는 볼러(Bowler)가 있으며, 이와 비슷하나 뒤의 브림이 휘어올라간 티롤모자(Tyrolean hat)와 둥근 크라운에다 앞에 챙이 달려 있는 자키(Jockey or Riding)가 있다. 또한 크라운이 높고 브림이 없거나 아주 좁은 클로시(Cloche), 브림이 넓은 케플린(Capeline)등 크라운과 브림의 유무 및 크기에 따라

다양하다(김경희, 1990). 특히 현대에 와서는 브림의 넓거나 좁거나 하는 단순한 유형의 변화보다는 이를 초월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인체의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에 피복하는 모자는 복식의 종류 중 다른 것 보다 중요하고 독특한 개성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패션스타일과 모자디자인은 시대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패션스타일이 과감해져 실루엣이 동적으로 강해지면 모자디자인에서는 형태의 과장이나 강한 장식으로 나타났으며, 패션스타일이 미니멀하고 심플할 경우 모자디자인도 더불어 사이즈가 작고 심플하여 장식이 절제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서희정, 2000).

모자의 재료에 있어서는 모든 소재가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의복과는 다르게 세탁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그 재료의 폭은 훨씬 넓으나 가볍고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모자는 전체적 이미지 균형, 얼굴형, 머리형태, 옷과의 조화를 고려해 각각의 용도, 목적에 맞춰 쓰는 것이 중요하다. 토털 코디네이션의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된 감각이 요구되므로 모자는 작은 부분이라도 주는 인상이 크기 때문에 전체 복식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악세서리이다.

모자는 그 형태나 재질 색채 면에서 그 표현 방법이 풍부해지고 악세서리의 한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복을 표현하는데 있어 모자는 더욱 보편화되고 종류의 다양화 만큼이나 그 표현방법이 다양화되어 의복의 한 형태로 그 중요성이 보다 커질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모자는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와 함께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에 따른 모자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이 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힌다.

2. 실험절차 및 방법

1) 자극물의 선정 및 제작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얼굴형은 ‘얼굴, 한국인의 낮’ (조용진, 1999)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얼굴 기준인 머리전체길이 233.38mm, 얼굴의 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폭 120.66mm에 가까운 계란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얼굴색상은 최영훈(1990)이 제시한 한국인의 피부색으로 가장 많은 색채로 나타난 6.5YR 7/3으로 하였다.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A전문대 패션디자인과 50명을 대상으로 모델의 얼굴을 직접 측정하여 평가집단(교수·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의복스타일은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축성이 있는 검정색 면소재의 앞목점과 옆목점을 기준으로한 기본 라운드 네크라인의 긴소매 셔츠를 상의로 통제하였다.

헤어길이는 선행연구(이영미, 1997)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쇼트(Short), 미디움(Medium), 롱(Long)의 3가지로 하였다. 쇼트는 커트머리로 귀가 나오는 정도, 미디움은 단발머리로 귀밑 5cm, 롱은 어깨아래 25cm 정도로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헤어디자이너의 자문을 구하여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서 스트레이트(Straight)와 웨이브(Wave)스타일을 선택하였으며, 헤어의 길이에 따라 각각 스트레이트와 웨이브 스타일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헤어의 색은 모자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 20대의 모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흑갈색(5YR 2/4)으로 하였다.

자극물의 모자 소재는 봄, 겨울의 모자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선행연구(박혜경, 1990)와 천연섬유 중 두 번째로 많이 선호하여 겨울과 봄 등 본 연구의 조사시기와도 잘 맞는 펠트(Felt)로 하였다. 모자 색상은 여성용모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색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김경희, 1990)와 조사되는 계절을 고려하여 검정으로 하였다.

모자유형의 선정은 크라운과 브림의 유무 및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는 선행연구(서희정, 2000; 김영자, 1976)를 토대로 2000년 봄부터 2002년 가을까지의 국내외 패션 잡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여성들이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형으로 머리에 밀착되는 스타일인 베레(Beret) (이경순 외, 1998) 크라운은 약간 높고 브림은 좁으면서 하향인 클로시(Cloche), 둥근 크라운과 양 옆이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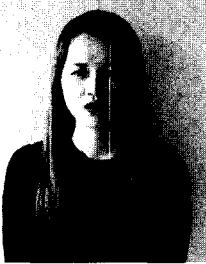



간 올라간 좁은 브림이 달린 형태로서 뺏뺏하며 주로 검정 펠트로 만든 볼러(Bowler), 브림이 넓은 모자의 총칭인 케플린(Capeline)의 4종류로 하고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를 기본형으로 포함시켰다.

자극물은 이상에서 선정된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 모자유형을 디지털카메라 Canon Power Shot-G2로 촬영한 후 사진 자극물을 4D-box CAD system과 Photoshop 6.0 program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2가지 헤어스타일(스트레이트, 웨이브)과 3가지 헤어길이(쇼트, 미디움, 롱)에 각각 모자유형(모자안쓴것, 베레, 클로시, 볼러, 케플린)을 다르게 하여 3가지 독립변인이 모두 조합되도록 조작한 후 총 30개의 자극물(11×14cm)을 완성하였다. 헤어길이 및 헤어스타일 자극물은

<그림 1>, 모자유형의 자극물(쇼트-스트레이트 기준)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이때 얼굴형, 상의형과 색, 헤어색, 자세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통제하였다. 배경색은 중간명도의 회색으로 처리하여 배경의 영향을 제거하고, Epson stylus photo 895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 단서의 변인 조작내용은 <표 1>과 같다.

2) 실험설계

본 실험은 독립변인인 헤어스타일(2), 헤어길이(3), 모자유형(5)의 3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2×3×5)에 의해 조합된 총 30개의 자극물을 3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실험조합에 하나

헤어스타일 \ 헤어길이	Short(쇼트)/H	Medium(미디움)/M	Long(롱)/L
Straight(스트레이트)/S			
Wave(웨이브)/W			

<그림 1>헤어길이 및 헤어스타일 자극물

모자안쓴것(No-hat)	베레(Beret)	클로시(Cloche)	볼러(Bowler)	케플린(Capeline)
				

<그림 2>모자유형의 자극물 (Short-straight hair 기준)

<표 1> 자극물의 조작내용

모자유형	헤어길이	쇼트(Short/H)		미디움(Medium/M)		롱(Long/L)	
	헤어스타일	스트레이트 (Straight/S)	웨이브 (Wave/W)	스트레이트 (Straight/S)	웨이브 (Wave/W)	스트레이트 (Straight/S)	웨이브 (Wave/W)
모자안쓴것(No-hat/N)		HSN	HWN	MSN	MWN	LSN	LWN
베레(Beret/B)		HSB	HWB	MSB	MWB	LSB	LWB
클로시(Cloche/O)		HSO	HWO	MSO	MWO	LSO	LWO
볼러(Bowler/R)		HSR	HWR	MSR	MWR	LSR	LWR
케플린(Capeline/E)		HSE	HWE	MSE	MWE	LSE	LWE

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between subject)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의복 및 헤어의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이주현, 1990; 강혜원 · 남미우, 1996; 김복숙, 1999; 윤지성, 2000; 윤소영, 2001) 등을 참고한 형용사와 예비 조사에서 헤어길이 및 헤어스타일에 따른 모자유형의 조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쌍을 추가하였으며, 인상 평가 어휘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0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총 22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었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경기 및 경남에 거주하는 패션디자인 관련학과 여대생 3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3년 3월중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헤어길이와 헤어스타일, 모자유형에 따른 여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결과 총 22개 형용사 쌍에 대해 $\alpha=.83$ 으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인상요인인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주의집중성, 귀염성의 신뢰도 계

수는 각각 .88, .83, .88, .73, .73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독립변인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다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헤어스타일 · 길이,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차원의 요인 분석

헤어스타일과 길이, 모자유형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22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22쌍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5개 요인으로 묶이어서 모자착용자의 인상이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주의집중성, 귀염성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7.4%로 5개 요인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세련된-촌스러운, 매력있는-매력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보기좋은-보기싫은, 멋있는-멋없는의 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고, 김복숙(1999)의 헤어스타일로 도출된 인상요인 중 호오성 요인 인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2는 깨끗한-저지분한, 안정된-불안정한, 정숙한-정속하지않은, 단정한-단정하지않은, 신중함-경박함, 차분함-차분하지않은의 6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이라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9.0%로 나타났다. 품위성요인의 구성인자는 윤소영(2001)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

<표 2> 헤어스타일, 길이에 따른 모자유형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 분석

형용사쌍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 ²)
세련된-촌스러운	매력성	.798	.129	.033	.289	.014	.738
매력있는-매력없는		.797	.036	.134	.112	.105	.678
좋아하는-싫어하는		.762	.160	.184	.006	.042	.641
보기좋은-보기싫은		.754	.223	.278	.125	.047	.714
멋있는-멋없는		.714	.171	.165	.362	-.041	.700
깨끗한-지저분한	품위성	.162	.766	.203	.096	.085	.671
안정된-불안정한		.099	.752	.079	.035	-.181	.616
정숙한-정숙하지않은		.076	.703	-.264	-.159	-.168	.624
단정한-단정하지않은		.079	.703	-.141	.016	.098	.530
신중함-경박함		.143	.695	-.196	-.057	-.140	.565
차분함-차분하지않은		.074	.636	-.298	-.252	-.075	.568
즐거움-우울함	활동성	.270	-.105	.823	.067	.135	.785
밝은-어두운		.263	-.129	.823	-.024	.190	.799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143	-.079	.703	.355	.275	.722
경쾌함-중후함		.135	-.207	.669	.014	.435	.697
강한-약한	주의 집중성	.143	.127	-.040	.806	.056	.691
강렬함-무난함		.275	-.147	-.110	.680	.060	.576
외향적인-내향적인		.121	-.081	.370	.649	.144	.599
대담함-소심함		.217	-.216	.380	.602	.014	.601
귀여운-성숙함	귀염성	.033	-.090	.218	.079	.844	.775
스포티함-드레시함		-.112	-.095	.139	.287	.702	.616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301	-.037	.303	-.128	.698	.687
고유치		6.02	4.17	1.97	1.42	1.01	14.59
전체 변량의 %		27.4	19.0	8.9	6.5	4.6	66.4
공통 변량의 %		41.3	28.6	13.5	9.7	6.9	100.00

관련 요인 분석에서의 품위성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3은 즐거움-우울함, 밝은-어두운,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경쾌함-중후함의 4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활동성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활동성요인의 구성인자는 이항미, 김재숙(1998)의 사교적 차원의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9%였다. 요인4는 강한-약한, 강렬함-무난함, 외향적인-내향적인, 대담함-소심함의 총4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주의집중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6.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 5는 귀여운-성숙함, 스포티함-드레시함,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의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

성되어 귀염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하여 4.6%의 설명력을 보였다. 김복숙(1999)의 성숙, 현실적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성요인에서는 세련되고 매력적이며 멋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성요인에서는 정숙하고, 단정하며 신중하고 차분한 것으로, 활동성요인에서는 밝고 경쾌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주의 집중성요인에서는 강렬하고, 외향적이고 대담한 것으로, 귀염성요인에서는 귀엽고, 스포티하며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4%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에 비해 매력성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 헤어스타일과 길이 모자유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이 5가지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및 모자유형은 작용자의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효과를 보면 단서가 헤어스타일인 경우 품위성 요인과 활동성요인에서, 헤어길이일때에는 매력성과 귀염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단서가 모자유형일때에는 매력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즉, 품위성,

활동성, 주의집중성, 귀염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과 활동성, 주의집중성 요인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의 세 가지 단서가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3><그림 4>로 설명하였다.

1) 매력성 차원

매력성 차원을 <표 3>에서 보면 헤어길이만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길이는 매력성 차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MCA 평균값의 차를 살펴보면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인 경우 매력적인것으로, 웨이브인 경우는 매력없는것으로

<표 3> 헤어스타일,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주의집중성		귀염성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자승합		자승합		자승합		자승합		자승합		자승합	
주 효 과	헤어스타일(A)	.510	.520	8.536	9.145**	4.399	5.027*	.262	.280	.641	.811		
	헤어길이(B)	4.924	5.024**	.781	.837	.631	.721	1.317	1.408	8.107	10.263**		
	모자유형(C)	2.147	2.191	2.496	2.674*	8.870	10.136**	4.887	5.224**	9.447	11.959**		
2원 상호 작용	A×B	.655	.668	3.620	3.878*	.413	.472	.247	.264	.961	1.216		
	A×C	.386	.394	.609	.653	.932	1.065	2.036	2.176	.795	1.006		
	B×C	.889	.908	1.343	1.439	.951	1.086	.700	.748	1.817	2.300*		
3원 상호 작용	A×B×C	.710	.725	1.067	1.143	1.611	1.841	1.439	1.539	2.114	2.677**		
M C A	변인	수준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헤어 스타일	스트레이트	.04		.16		-.12		-.03		.04		
		웨이브	-.04	.04	-.16	.16	.11	.12	.03	.03	-.04	.04	
	헤어 길이	쇼트	-.06		-.01		-.09		.13		.14		
		미디움	-.18		.09		.03		-.06		.18		
		롱	.23	.17	-.08	.07	.06	.06	-.07	.09	-.31	.22	
	모자 유형	모자 안쓴것	-.26		-.14		.40		-.43		.09		
		배래	-.07		-.08		.39		.24		.50		
		클로시	-.04		.18		-.29		-.07		.05		
		볼러 캐플린	.18 .19	.17	.23 -.19	.17	-.19 -.33	.33	.10 .17	.24	-.11 -.55	.34	
	Multiple R			.240		.247		.354		.262		.408	
	Multiple R ²			.058		.061		.125		.068		.167	

*p<.05, **p<.01

로 지각되었다. 헤어길이는 쇼트나 미디움인 경우 부정적으로, 롱인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헤어길이가 긴 경우 세련되고 보기좋고 멋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헤어에서 긴길이가 세련된 이미지에 우선적으로 관여하는 인자로 나타났다는 도주연(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자유형에 있어서는 케플린, 볼러의 경우 가장 매력적으로 지각되고 베레나 클로시 그리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가장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는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품위성 차원

품위성 차원을 <표 3>에서 보면 헤어스타일, 모자유형이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헤어스타일은 품위성 인상차원에 지배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헤어길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차를 비교해보면 헤어스타일은 스트레이트인 경우, 헤어길이는 미디움일때, 모자유형은 볼러와 클로시의 경우 안정되고 정숙하며 단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헤어길이는 품위성 차원에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헤어스타일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인 경우 헤어길이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단정하고 정숙하여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웨이브일때는 헤어길이에 상관없이 품위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헤어길이가 짧은 경우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길이가 미디움인 경우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헤어스타일이 스트레이트인 경우 가장 정숙하고

안정되고 단정한 것으로 지각되는 반면 웨이브인 경우 가장 품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에 헤어길이가 길었을때와 컷할 때 지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영미(1997)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품위성 인상차원에는 헤어길이보다 헤어스타일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활동성 차원

활동성 차원을 <표 3>에서 보면 헤어스타일과 모자유형은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헤어길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해보면 헤어스타일은 웨이브인 경우에, 헤어길이는 롱이나 미디움인 경우, 모자유형은 모자를 쓰지 않거나 베레인 경우 더욱 밝고 활동적이며 경쾌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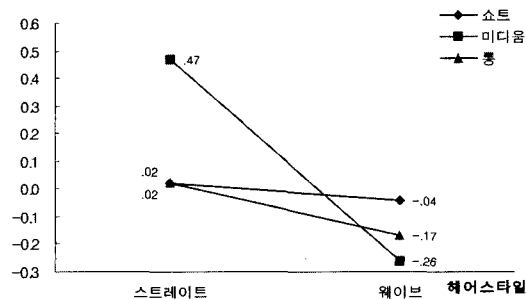
4) 주의집중성 차원

주의집중성 차원을 <표 3>에서 보면 모자유형은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모자유형은 다른 단서에 비해 주의집중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효과도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CA평균값의 차를 <표 3>에서 보면 헤어스타일은 웨이브이고 헤어길이가 쇼트 일 때, 모자유형은 베레와 케플린, 볼러 일 때 강렬하고 외향적이며 대담하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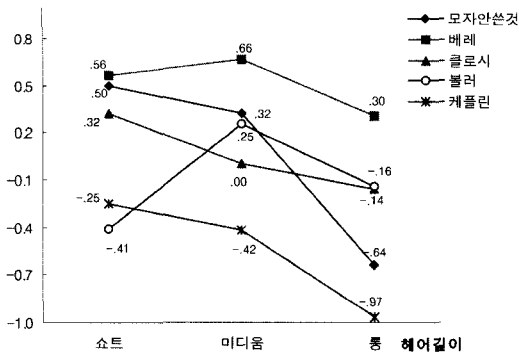
5) 귀염성 차원

귀염성 차원을 <표 3>에서 보면 헤어길이 및 모자유형은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헤어스타일은 스트레이트일 때 그리고 헤어길이는 쇼트 또는 미디움이고 모자유형은 베레일 때 가장 귀엽고 어려보이고 스포티해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어길이와 모자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귀염성 인상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염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헤어길이와 모자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4>에서 보면 헤어길이가 쇼트일 때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와 모자중 베레와 클



<그림 3> 품위성 평가요인에 미치는 헤어스타일과 헤어길이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귀염성 평가요인에 미치는 헤어길이가 모자유형의 상호작용효과

로시를 착용하게 되면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미지로 지각되지만 볼러와 케플린은 성숙하고 드레시하고 나이들어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헤어길이 중간일때는 베레나 볼러가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클로시나 케플린은 부정적으로 즉, 성숙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헤어길이가 롱일 때 베레는 긍정적으로, 클로시, 볼러나 케플린,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모자유형 중 클로시와 볼러는 헤어길이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여 클로시를 쓸 경우 헤어길이는 쇼트로, 볼러를 쓸 경우 헤어길이를 미디움으로 할때 보다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헤어길이 동일하더라도 모자유형에 따라서 귀여운 이미지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길이에 관계없이 베레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케플린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특히 헤어길이 긴 경우 부정적 이미지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자유형은 헤어길이와 함께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의 변화가 모자 착용자의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22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에 따른 모자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활동성 요인, 주의집중성 요인, 귀염성 요인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유형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성 차원의 인상에는 헤어길이가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헤어길이가 롱으로 길 때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헤어스타일에서는 스트레이트인 경우, 모자유형에 있어서는 케플린과 볼러의 경우 가장 세련되고 보기 좋으며 멋있고 매력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품위성 차원의 인상에는 헤어스타일과 모자유형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헤어스타일은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헤어길이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헤어스타일과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발, 스트레이트의 경우 가장 정숙하며 단정한 것으로, 단발, 웨이브일 때 가장 정숙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어 헤어길이보다 헤어스타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유형에 있어서는 볼러와 클로시의 경우 가장 정숙하고 단정하고 안정된 것으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차원의 인상에서는 헤어스타일과 모자유형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헤어길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의집중성 차원의 인상에서는 모자유형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귀염성 차원의 인상에는 헤어길이가 모자유형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두 변인은 상호작용하여 귀여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길이가 짧은 쇼트일 때, 그리고 긴 롱일때에는 베레를 쓰게 되면 귀여운 이미지로, 볼러나 케플린을 쓰게되면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고 헤어길이가 중간일 때 미디움일 때에는 베레나 볼러는 긍정적으로, 케플린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는 헤어길이가 짧거나 단발일때 귀엽고 길 때에는 성숙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헤어길이와 모자유형에 따라 귀여운 이미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3가지 단서인 모자유형, 헤어스타일, 헤

어길이는 착용자의 인상에 독립된 정보로 처리되고 특히 모자는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정보들은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되고 모자유형은 지각단계에서 헤어스타일이나 헤어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 독립된 정보로 작용할때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인상형성이론을 뒷받침해주며, 인상형성시 모자유형, 헤어스타일이나 헤어길이는 정보로서 갖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묶여져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를 설명해 준다.

또한 현대패션은 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이 요구되면서 모자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자유형, 헤어스타일, 헤어길이는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되고, 이들 조합에 따라 다양한 인상창출이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인상형성 분야에 다루지 않았던 모자유형을 헤어스타일, 헤어길이와 함께 각각의 특성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한 연구가 요구된다.

모자 착용자의 얼굴을 통제하기 위해 CAD로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표정에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자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뿐 아니라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모자유형과 모자색상 및 소재, 통제변인인 상의형과 색상, 헤어색상, 얼굴형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모자디자인의 선택과 인상관리 자료제공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 남미우. (1996).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2), 241-257.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
- 김경희. (1990).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복숙. (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휴. (1996).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자. (1976). *현대 한국여성모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숙. (1991).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광주. (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상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주연. (1991).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민여. (1997). 모자이야기. Artist in hats, The Korean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경희대학교 출판부.
- 박혜경. (1990). *모자에 활용된 섬유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선. (1982). *의복에 대한 의미분척도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숙. (1978). *장모의 기초와 응용*. 진명문화사.
- 서희정. (2000). *Millinery Design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지성. (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경손. (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교문사.
- 이영미. (1997).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낫*. 사계절 출판사.
- 최영훈. (1990). *색채학개론*. 미진사.
- Anderson, N. H. (1965). Averaging v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4-400.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 Cash T. F. (1985). The impact of grooming styles on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m. r.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books, MA: Health/Lexington Books.
- Delong. M. 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784-788.

DeLong, M., & Larntz, K. (1980),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281-293.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Pancer, S. M. & Memdi. (1978). J. R., Length of hair and bear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1328-1330.

Terry, R. L., & Davis, J. S.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 918.